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제 3권 1호 (2015. 2) pp. 39~45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 3 Iss. 1 (Feb, 2015)

임상치위생 실습을 위한 대상자 모집방법 모색

김희진, 한선영, 김나경, 신수연, 유진영, 주인영, 차세리, 최은실, 최지혜, 노희진[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Finding Subject Recruitment Methods in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Hee-Jin Kim, Sun-Young Han, Na-Kyung Kim, Su-Yeon Shin, Jin-Young Yoo, In-Young Joo, Se-Ri Cha, Eun-Sil Choi, Jee-Hye Choi, Hie-Jin Noh[1], Hyun-Sun Jeon[1]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220-701, Korea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earch an appropriate recruitment method of client for a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in dental hygiene curriculum. First, we evaluated promotion effects between online and offline method for client recruitment for 7,950 students attended in a university. Second, we investigated opin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on participation in oral health promotion (OHP) program using convenient sampling (N=139).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version 20.0. The promotion effects were higher in online method then that in offline method. 38.4% of subjects hesitated participating in the OHP program because of lack of time (51.8%), and lack of interest (22.8%). On the other hand, 61.6% of subjects who hoped for participation reported that the reason because of a keen of interest (36%), and free of charge (36%). In conclusions, online promotion method was appropriated for recruiting university students. And it was needed to enhance student's recognition on oral hygiene care and conduct dental hygiene care considering personal time for increasing recruitment.

Key words :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promotion method, university students

색 인 :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대학생, 임상치위생학 실습, 홍보방법

교신저자: 노희진
(220-701)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Tel: (033) 741-0394, Fax: (033) 741-0391, E-mail: nohh14@yonsei.ac.kr
투고일: 2015. 02. 05. 심사일: 2015. 02. 07. 게제확정일: 2015. 02. 23.

1. 서 론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이다(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1). 구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임상기초, 공중보건(지역사회), 구강보건교육 및 임상치위생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치위생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학년이 진행하는 임상치위생 실습은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전문 지식을 통합하여 실제 대상자에게 실현하는 종합적, 실천적 과정이다. 졸업 전 다양한 대상자에게 치위생처치를 적용해봄으로써 학생들은 지식 및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될 뿐 아니라 치위생사 직업적 신념과 사명감을 얻게 된다.

예비치과위생사로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준의 구강 및 전신건강을 보이는 대상자를 대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신분에서는 임상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대학별로 실습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과 운영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자 모집은 학생이 직접 모집하거나 자발적으로 해당 대학의 실습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경우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할 때에는 학생 실습에 대한 불신과 구강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실습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어려움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치과대학 학생들도 졸업 전 충분한 임상실습(원내생진료)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의 치위생 실습은 반드시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의 지도하에 학생의 치위생처치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습이 치과대학 실습에 비해 비침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상자 모집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적절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치위생처치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홍(2)에 의하면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및 어떤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해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3-4).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정보접근성으로 인한 정보 획득은 오프라인 정보 획득보다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상치위생 실습(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홍보방식(온라인/오프라인)을 평가하고 실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일개 대학교 재학생이었고, 2014년 3월 기준 총 재학생은 7,950명이었다. 이 대학은 한 지역 내 두 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다. 홍보방식(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효과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각 캠퍼스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치위생학과가 속한 캠퍼스를 제1그룹으로 하였고, 치위생학과가 속하지 않은 캠퍼스를 제2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제1그룹에 속한 학과는 의학과, 간호학과 이고, 제2그룹에는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보건과학대학, 과학기술대학

의 학과가 포함되었다.

2.2. 연구방법

2.2.1. 홍보방식에 따른 효과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를 시행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연구방법과 홍보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고, 의료법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의료법 제57조(사전심의의 대상), 정보통신법 제50조 제8항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으로 홍보자료를 구성하였다.

홍보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오프라인 방식은 기존에 학생들이 대상자 모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던 방식을 이용하였다. 대학에서 지정한 장소(학생식당, 단과대학 게시판, 기숙사 화장실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였고, 제1그룹 캠퍼스에는 23개, 제2그룹 캠퍼스에는 48개를 게시하였다. 홍보자료가 잘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기간 중 3회에 걸쳐 포스터의 부착상태를 확인하였다. 온라인 방식은 단과대학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과 홈페이지, 대학 학보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단체 대화방에 오프라인 방식에서 사용한 포스터를 그림파일로 게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든 재학생들에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홍보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게시된 홍보물을 보고 문의한 학생의 수로 홍보방식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였다.

2.2.2.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견

재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거나 저해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재학생 140명(제1그룹 35명, 제2그룹 105명)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본 연구의 스케일링 필요도, 정기적 스케일링 수혜 여부,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의사,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와 참여하지 않는 이유, 성별, 나이, 소속 캠퍼스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일부 문항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최종 취합한 1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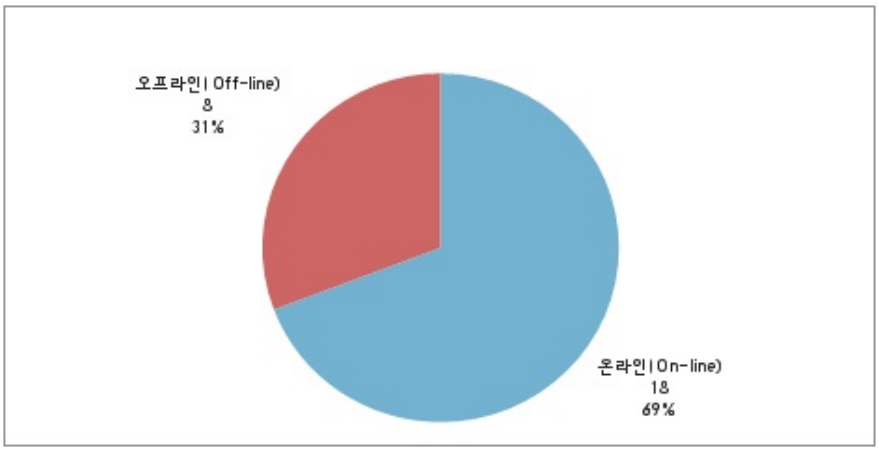
2.3. 통계분석

홍보 효과는 빈도로 제시하였고,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회수한 설문지는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그램(IBM Corp., Chicago, USA)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3. 연구결과

3.1. 홍보방식에 따른 효과

홍보방식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각 문의수를 측정하였다. 온라인 홍보를 보고 문의한 경우는 전체 26건 중 18건 (69%)으로 오프라인 (8건, 31%)을 참고하여 문의한 경우보다 많았다.



<그림 1> 홍보방식에 따른 효과

3.2.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견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에 응답한 대학생은 남자 50%, 여자 50% 이었고, 평균 연령은 22 ± 3.0세 이었다. 조사 결과, 95.7%의 학생들이 본인의 구강상태에 대해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1>. 또한 정기적인 스케일링 수혜여부에서도 그룹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53.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46.8%이었다<표 2>.

치위생학과 접근도에 따른 그룹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의사 차이에서는 제2그룹에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수의 약 2배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3>.

<표 1> 스케일링 필요도에 대한 자가 평가

Unit: N(%)

	전체	제1그룹	제2그룹	p-value
예	85 (61.6)	19 (52.8)	66 (64.7)	0.206
아니오	53 (38.4)	17 (47.2)	36 (35.3)	
합계	138 (100)	36 (100)	102 (100)	

* 무응답 제외

<표 2> 정기적인 스케일링 수혜여부

Unit: N(%)

	전체	제1그룹	제2그룹	p-value
필요	133 (95.7)	35 (97.2)	98 (95.1)	0.598
불필요	6 (4.3)	1 (2.8)	5 (4.9)	
합계	139 (100)	36 (100)	1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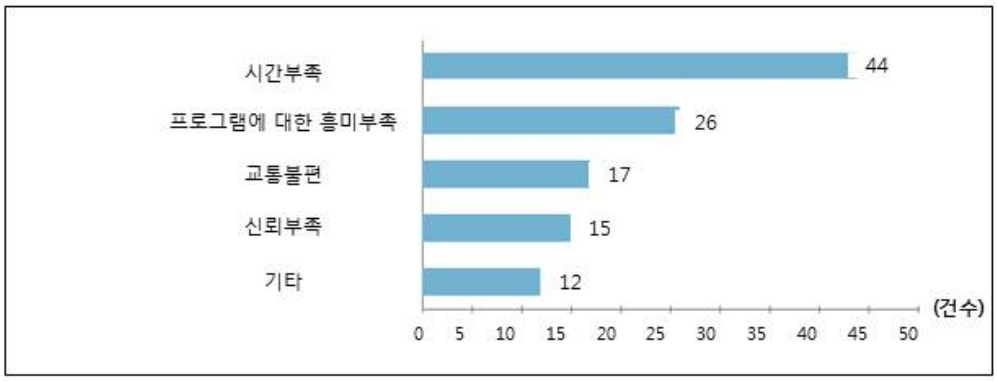
<표 3> 치위생학과 접근도에 따른 그룹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의사 차이

Unit: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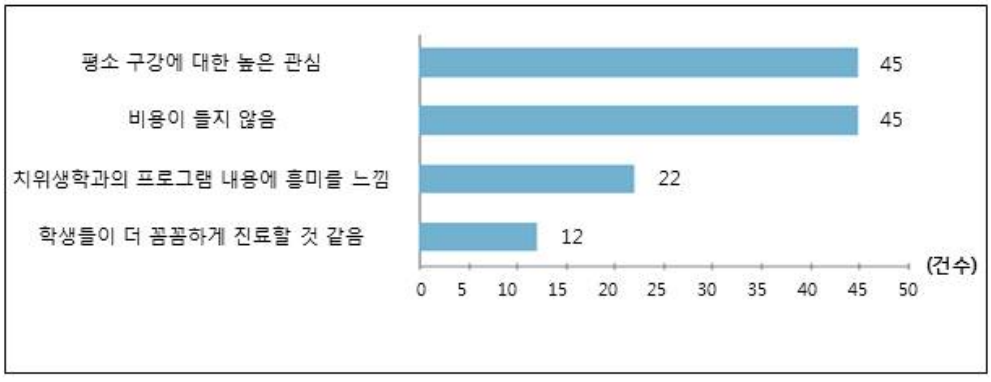
	전체	제1그룹	제2그룹	p-value
예	74 (53.2)	18 (50.0)	56 (54.4)	0.651
아니오	65 (46.8)	18 (50.0)	47 (45.6)	
합계	139 (100)	36 (100)	103 (100)	

설문지 응답자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시간부족' (38.5%)이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부족'(22.8%)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캠퍼스 간 먼 거리로 인한 '교통 불편'(15%), '학생 진료에 대한 신뢰 부족'(13%)의 이유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들이 조사되었다(그림 1).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이유에서는 '평소 구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 각각 3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낌'(17%), '학생들이 더 꼼꼼하게 진료할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9.7%)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무응답 제외)



<그림 3> 참여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무응답 제외)

4. 고안

본 연구는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약 3주 동안 일개 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홍보방식을 적용하여 동대학 치위생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홍보한 효과를 조사하고,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온라인 홍보방식에 의한 홍보효과가 오프라인의 방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연구대상이 온라인 이용률과 웹접근성이 높은 세대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박(5)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정보획득행위'가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하여, 이(6)의 연구에서도 20대가 인터넷 사용편리성, 언어 및 컨텐츠, 이용자 통계, 구조적/시각적, 전반적인 사용에서 사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7)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의료진과 소통을 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으며,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들은 정보가 더 설득력 있게 소비자를 움직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가져올 파급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조사한 설문에서는 연구대상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치위생학과가 속한 제1그룹은 평소 치위생학과 학생들과 친교를 통해 학과에 대한 인식 및 치위생 실습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그룹이었고, 치위생학과가 속하지 않은 캠퍼스 학생으로 구성된 제2그룹은 상대적으로 치위생학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룹을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대학의 구조적 특성상 같은 도시 내 치위생학과가 포함된 캠퍼스와 포함되지 않은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스케일링 필요도, 정기적 스케일링 수혜여부,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의지에 대한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표 1,2,3>. 연구대상자들의 95.7%가 본인의 현재 구강상태에 대해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8.4%에 달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 38.5%로 가장 많았고,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부족이 22.8%가 많았다. 본 대학의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치위생학과 학생의 정규수업 과정으로서 수업시간 중에 진행이 되므로 타과 학생들의 강의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제2그룹의 경우에는 캠퍼스 간 거리적 문제가 작용하여 접근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1그룹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의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바쁜 학사일정으로 인해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p>0.05$, 결과 제시하지 않음). 그리고 학생진료에 대한 신뢰부족에 대한 염려는 연구대상자들이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림 2). 또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61.6%의 학생들은 구강에 관한 높은 관심(36%)과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36%)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그림 3).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동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구강에 대한 관심과 정기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을 이용해 홍보하고, 시간적 제약을 줄이기 위해 한 번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대상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프로그램 참여 문의수가 저조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기간 홍보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홍보기간과 홍보자료 게시 장소를 넓혀 모든 재학생들에게 홍보자료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정규 수업과정 중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대학 내 학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방식을 시도해보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견을 실제로 조사한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한 홍보방식을 적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전후의 의식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대학 치위생학과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홍보방식을 탐색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단면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효과는 오프라인 방식(31%)보다 온라인(69%)에서 더 높았다.
2.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38.4%)보다 희망하는 응답자(61.6%)가 더 많았다.
3.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시간부족'(51.8%)이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부족'(26명, 22.8%), '교통 불편'(17명, 15%), '신뢰 부족'(15명, 13%) 순이었다.
4.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평소 구강에 대한 높은 관심' 과 '비용이 들지 않음' (45명, 36%)이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낌' (22명, 17%), '학생들이 진료하므로 더 꼼꼼할 것을 기대'(12명, 9.7%)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내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홍보효과와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홍보방식을 이용하여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 시간을 대상자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4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생논문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6.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2010.1.18., 2011.11.22.>.
2. 홍사찬. 정보접근성 향상방안; 웹 접근성 제도화 동향 및 준수실태. 지역정보화 2006;36:22-29.
3. 김황용.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 정책, 디지털융복합연구 2013;11(9):181-188.
4. 박종혁, 이진석, 장혜정, 김윤. 소비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방의학회지 2008;41(4):241-248.
5. 박현주. 정보행위 분석을 통한 정보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0;21(1):89-103.
6. 이승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 따른 고령자를 위한 웹 사이트 개선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2006.
7. 김천주.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유형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2013.